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응급대원에게 중독 및 정신 건강 서비스 훈련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S.07144/A.07686)은 위기 개입 팀 훈련, 정신 건강 응급 대응, 임시 편향 훈련, 날룩손 훈련 등 중독 및 정신 건강 서비스 훈련 제공이 골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위기 개입 팀 훈련, 정신 건강 응급 대응, 임시 편향 훈련, 날룩손 훈련 등 중독 및 정신 건강 서비스 훈련을 위기 안정화 센터가 위치한 지역 소방관 및 응급대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S.07144/A.07686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감한 응급 대원들에게 정신 건강 문제 및 중독으로 고통받는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팬데믹은 뉴욕 주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급대원 및 비상 서비스 인력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도구와 자원을 지원받아 우리의 마을과 지하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법안은 비상 서비스 인력이 중독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최신 훈련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늘어나는 정신 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위기 안정 센터가 위치한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전국 행동 보건 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Behavioral Health)에 따르면, 약물 과다 사용 및 자살은 만 25~44세 미국인 사망 원인에서 교통 사고를 앞질러 최대 원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자살 예방 기금(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은 또한 자살을 뉴욕에서 12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020년 기준, 뉴욕 주민 100,000명 당 약 8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만 10~34세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며, 만 35~54세에서 자살은 4대 사망 원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뉴욕주는 종합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는 단기 위기 주거, 위기 대응 서비스, 종합 정신 비상 프로그램(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s, CPEPs), 이동 위기 팀, 위기 개입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작년 주정부 예산(State Budget)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이 아니라 사법 집행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에 의한 자발 이송을 통해 문제에 대응하는 위기 안정 센터를 설립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에 의해 의무화된 훈련은 위기 안정 센터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2020년 의회는 전국 자살 예방 핫라인 개선법(National Suicide Prevention Hotline Improvement Act)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전국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번호를 9-8-8로 통일했습니다. 새로운 핫라인은 2022년 7월부터 뉴욕에서 운영을 시작하며, 자살 및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핫라인은 의료, 소방, 공공 안전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9-1-1"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회계연도 2022~23에 예산 3,500만 달러를 확보하여 총 연간 예산이 6,000만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뉴욕주 전역에 콜센터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뉴욕주는 확대 추진을 위해 미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약물 중독 및 정신 보건 서비스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으로부터 72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James Sanders J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급대원은 위기 상황에서 뉴욕 주민에게 비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중독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응급대원은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여 생명을 살립니다. 정신 건강 위기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비상 인력이 정신 건강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용감한 영웅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를 더욱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Mathyde Frontu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응급대원들은 크게 늘어난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신고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EMS 인력이 정신 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전 적절한 위기 개입 훈련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우리의 응급대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을 더욱 잘 도울 수 있도록 훈련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